













# 의 길을 모색한다

# 공존할 수 있는가

## 자주화와 평화운동

# 제는 우리도 있습니다

## 기자



조인숙

(공해추방운동연합 회원)

세계는 비로소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 평화주의에 불구하고 한반도의 남대선 전시는 남북평화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있다. 또 철근이 다 감속이다 허허한 현대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철근과 학 기술의 신실한 핵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수습되고 있다.

핵, 과연 한반도는 안전인가.

더이상 이 질문은 아무도 대답할 이는 없을 것이다. 이에 보충하여 이번 특집 기사를 통해 건강함을 높여선 인연한 한반도의 핵문제와 올바른 남북평화운동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 **핵에 대한 대중의 감정적 공포심을 실천적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 **장소: 본사 조사자료실**
- **사회: 추인수 본보 학술부장**
- **절리: 황선해 기자**

성적자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IMF가 인도의 실정세계의 사인합회와 여성신학자들 의해 주도되는 운동은 막연한 평화애호와 반전에 대한 공유된 이념으로 반전반핵운동이 거지고 있어 할 반미자주화, 통일외의 시이 맞물리지 못하고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에 의해, 우리나라의 반전반핵운동은 서구의 환경운동의 모방에서 시작되고,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의 체면의 모순으로부터 민주적 권리의 정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면서 민족운동을 풀어나가기 위한 반전반핵 평화운동으로 힘있게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6년 김재진, 이계호영사가 「반전반핵장기교동」을 위하여 분신한 사건이 반전반핵운동은 새로운 반전의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감정적 차원의 대중의 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핵에 대한 공포가 전혀 무감각한 것은 핵무기의 위력이 너무 엄청나 오히려 추상화 되어버렸다는 모순입니다. 자본의 논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파는 가려한 엄청난 전력을 생산한다면서 인공적인 반전조를 늘려 나가는 핵에 대한 실각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핵을 대중들에게 친화하게 인식

3. 90년대 반전반핵 운동의 위상 및 실천과제

▲이재호: 우리나라의 반전반핵운동은 단순히 보상운동이나 환경보존운동이라는 차원을 넘어 넘어 반미자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남북대립 분단, 국,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식민주의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신데렐라의 흐름을 타고 평화주의의 정적이 제1의 크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열의 성격을 견어바린 평화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영미주체가 의의와 개입을 할 재력이 필요하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명진: 분단에서 오는 정치적으로 외세 매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에서 반전반핵운동이 지향해야 할 비는 정치·군사적 자주화를 기본강령으로 하여 최종목적인 자주·민주·인권을 실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인숙: 구체적인 실천방법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나라의 반전반핵

## 신데렐라 국제정세 속에 분단구조 극복 위한 내부역량 키워야

운동은 서구의 반전반핵운동과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전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녹색당은 경우는 환경운동에서 반전반핵운동으로 단계분적으로 발전해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운동의 심각성이나 결방적으로 불태 단계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제정세가 장악된 난국에도 불구하고 이 때에 민족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제국열강들은 민족운동을 통해 정치적 이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의 맥락에서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감정적 차원의 대중의 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핵에 대한 공포가 전혀 무감각한 것은 핵무기의 위력이 너무 엄청나 오히려 추상화 되어버렸다는 모순입니다. 자본의 논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파는 가려한 엄청난 전력을 생산한다면서 인공적인 반전조를 늘려 나가는 핵에 대한 실각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핵을 대중들에게 친화하게 인식

# 가상기획: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 ○○○○년 봄의 어느날 전쟁이 남긴것은 죽음과 패배감만이...

○○○○년 3월20일

대통령발 2차년의 봄을 예상치도 않은 낮은 군부대에서 맞고 있다.

○○○○년 3월30일

있고제 부대에 갑작스런 통신단결과 전신방송중단사건은 더욱 부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때 공대를 다니다 나와 같은 불이된 최영명의 말로는 한반도 어디까지 소규모의 전술핵이 공격무기로 사용되어 발생한 순간적 전자원소 때문일지 모른다는 추측이었다. 자기하를 막기위해 정에서 오면 편지까지도 차단될것이고 그럴수록 더욱 부대내외 흥

○○○○년 4월5일

계속되는 우추중환 날씨, 구름사이 간간히 보이는 태양은 어떤 황폐한 정열의 태양이라 느껴질 수 없는 색이기는 몇몇 송덩이 걸었다. 마침내 정오쯤부터 쏟아지는 봄에 내리는 비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잔눈비까지 섞인 비였



이런 소란이 나들었다. 전방의 군부에서 핵무기를 잘못 다루어 도리어 아군 1개 소대가 전멸했다는 이야기, 동맹한 적 약한 미군도 아닌 일본자위대의 최신허 핵잠수함이 폭격했다는 하는 말까지 끊이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아까워하는 소문은 적의 정찰기인 경기도 X X 방면에 실체로 핵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마침 그날은 부대에 통신중단이 있던 날과 일치하여 더욱 그것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것이... 언젠가 국민화교 특별활동시간에 원자력발전소 탐방을 갔던 것이 아닌가. 거기서 우리들은 서울, 경기도의 전기수용량의 10분의 1을 일제한다는 그 규모와 미국의 최첨단 시설에 현혹성을 지르지 않았던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것이라는 핵, 고도의 자존과 기성의 집약체인 핵발전소 그곳에 대해 두번째 소식을 접한것은 지난해 대학에 들어와 학보에 실린 그 지역의 르포르사제였다. 인근주민들의 식수용량의 사정이 실린 기사 그곳 발전소를 구경하던 친구들의 회자화학과를 꿈꾸었던 순간처럼 나의 꿈은 실연의 선이 되었다.

아무도 바라지 않은 나의 꿈과 이 땅의 녹색공도 아랑곳없이

이 내용은 미래의 어느 때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핵전쟁을 가상으로 기술한 글입니다. 따라서 등장하는 모든 용어는 허구임을 밝혀드립니다.

(편집자)

글: 김창섭 기자  
그림: 김진택 특약기자

# 석유 한방울로 부터 선정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석유를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인류에게 중요하게 사용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석유는 에너지로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사용됨으로써 현대산업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선정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석유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활용해서 비롯됩니다. 석유 한 방울을 나눠 주는 우리 나라에서는 선정은 산유국의 꿈을 키우며 해외시장에 앞장서 북미에 마르코 폴로 유전, 남미 에르도르 B-12 광구, 미얀마 블록 C 광구등을 개발, 세계의 주축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선정은 국내 최초로 「석유에서 섬유까지」 산업의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정의 수직계열화는 석유 및 석유화학 기초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이 섬유 및 신소재분야, 배스피넬, 컴퓨터 테이프 등 동메리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일관 생산체계를 말합니다.

이로써 선정은 21세기 세계일류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가 함께 풍운을 장식할 21세기. 다가올 그날을 위하여 선정은 석유 한 방울로 부터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 **선정의 산업 수직계열화 체계**

**SUNKYONG**  
鮮京그룹

(주)선정 선정인더스트리 (주)SKC-선정메그네틱세라믹 (주)커워탈 (주)유공 (주)동국상사 (주)공해운









